



강을 찾아 나선 천삼백 리, 길 위에서 삶을 읽다

치열한 고학, 책의 섭렵..... “나는 무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생각을 일찌 감치 접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나의 모든 지식체계는 그 무렵에 거의 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시절의 이야기부터 털어놓는 신정일 선생은 외양부터가 참 질박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이다. 넉넉하면서도 온유한 표정 속에서 사뭇 속기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그의 얼굴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편안한 순리마저 보인다. 그는 또한 방대하면서도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동서고금의 고전들이 일러준 지혜의 정수가 일목요연하게 박혀 있다. 필요할 때마다 쉽고 편하게 꺼내 쓴다. 단구인 그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수천 리 전국의 강길을 걸어낼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런 자신감과 저력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는 자 두려울 게 없는 것이다.

“2001년 9월 14일 강 기행을 시작했어요. 자연문화 답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어요. 1997년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기행답사 강의를 하는 동안 수강생들과 기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스케줄이 풍광이 좋고 이름난 명승지만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답사가 될 수 없었지요. 옛 선인들 중에서 산을 답사한 분들은 많은데 강을 답사한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 기행에 나서게 됐죠.”

그의 기행은 사실 고행에 다름 아니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줘서 흥취가 솟는 일도 아니다. 노잣돈을 쥐어주며 등을 떠미는 사람도 없다. 풍찬노숙(風餐露宿)의, 길도 없는 길을 찾아 걷는 이 고되고 거친 일은 오로지 그가 좋아서 택한 일이다. 낙동강 천삼백 리 길을 그는 동행도 없이 혼자서 걸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못해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고 한다. 혼자 선 길 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도 그에겐 그러나 벗이며 스승일 뿐이다. 그는 때로 “고통과 고뇌는 위대한 자각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늘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한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

“열다섯 살 무렵 가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생각을 했어요. 그

런데 화엄사의 스님께서 중이 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돌려보내더라고요. 머리를 깎지 못한 나는 부산으로 갔다가 경주를 거쳐 대구로 갔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부터 집이 있는 진안까지 걸었죠. 그때 길 위에서 느낀 외로움이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최초로 자각했던 거죠.”

강 속에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들어 있다..... 그는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낮과 밤을 전국의 산자락과 들녘과 강변의 길 위에서 보냈다. 평생을 길 위에서 지내다 보니 그에겐 길에 대한 신앙 같은 것도 생겼다. “길은 내리막길이다. 그러나 내려간 만큼 또 올라가야 하고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것이 인생살이 아닌가? 내가 졌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길 위에 있었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길 위에 있었다. 나아갈 수도,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그 길을 벗어난 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산과 강을 따라 걸으며 내 속에 숨어 있던 나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2001년 9월 14일 밤 태백행 열차에 몸을 실으면서 낙동강 기행을 시작한다.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태백 천의봉 ‘너덜샘’을 찾아나선 것이다. 너덜샘을 거쳐 그는 물을 따라 아래로 아래로 걷기 시작한다. 그는 물을 따라 걸으면서 강 속에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들어 있는 것을 깨닫는다. 강에는 고되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과 괴로움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4대강 기행을 마친 그에게 각자의 강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낙동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동단결의 강이에요. 몇몇 지류들, 이를테면 대동천 태화강 형산강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이 한데 모여서 다대포로 빠져나가거든요. 마치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품는 넉넉한 강이 낙동강이죠. 낙동강과 대비되는 강이 바로 섬진강인데 이 강은 누이 같은 강이에요. 나누어 주는 강이죠. 낙동강과는 달리 모든 지류들이 나누어져 제각기 흘러가거든요. 풍토학자들은 이런 자연의 특질이 지방색을 결정짓는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는 풍토와 지역색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성호사설》의 저자 이익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자연과 환경의 특질이 그 지방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계산에 밝은 위정자들의 술책에 불과해요. 사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사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모두 인간적인 따뜻함과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길 위에서 만난 순박하고 친절할 사람들의 마음을 고맙게 느끼고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회 없는 답사를 위해서 수많은 고금의 자료들을 취합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다. 그가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는 한글학회에서 펴낸 《지명총람》이다. 현지에 사는 주민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것이 그의 귀뜸이다. 이밖에도 《동국여지승람》 《택리지》 《연려실기술》 등의 고문헌도 꼼꼼하게 찾아서 살핀다. 한 보라도 허투루 걷지 않는 것이다.

강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전국의 산과 강을 찾아 돌아다니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자연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그는 한려수도나 변산반도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처럼 강도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장에 가보면 자연과 생태계 파괴가 정말 심각해요. 시골에는 빈집들이 갈수록 늘고 있죠. 일본에 기코쿠 강이라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 강 유역을 박물관과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강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강은 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밀접해요. 강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 거죠. 지금이라도 강을 정책적으로 관리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곧 자연이거든요. 사람은 자연의 일부지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강이 살아야 하고 자연이 살아야 합니다.”

그의 말이, 강물처럼 마음을 적시며 차분하면서도 몽클하게 가슴에 와닿는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